

금호석유화학

스타일 대조적인 금호家 형제, 경영성적 희비

금호아시아나



‘꼼꼼 내실’ 박찬구

실적 고공행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경영성적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형인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 실패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주력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실적반등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외형 중시’ 박삼구

악재 겹쳐 고전

◆수령에 빠진 박삼구 회장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실패 후 발생하는 후폭풍은 2002년 9월 그룹 회장직에 오른 뒤 잇따라 진행된 무리한 인수·합병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과거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주변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박 회장은 앞만 보고 달려갔다.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인수 여파를 아직도 이겨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초부터 그룹 재건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매각했던 금호타이어 인수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패했다. 금호홀딩스와 금호고속 합병으로 그룹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를 위해 동원된 계열사들의 피로감은 높아졌고 경영실적 또한 부진했다.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역시 실적 부진 속에 무리한 자금조달로 부채비율이 치솟는 등 재무부담이 커졌다. 박 회장은 이에 올해부터 내실에 집중하며 운수·건설·항공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삼각축

으로 그룹을 새롭게 꾸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지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또 올해 연초에는 박 회장이 참여했던 승무원 격려 행사에서 악수, 포옹, 반말 등의 행동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룹 총수의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 리스크를 아시아나항공이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불거진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아시아나 직원들이 거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의 경우 박 회장이 무리하게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다 생긴 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박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악순환 고리에 총수 리스크까지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 상당수준

금호석유화학

페놀체인·NB라텍스 ‘깜짝실적’ 고무부문서 압도적 실적 모멘텀

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에 승무원, 승객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얼굴인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다. 내년에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갚기 위해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조원 상당의 금호터미널을 아시아나항공에서 지주사로 2000억원의 헐값에 인수했다. 최근에는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을 4500억원에

매각해 부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구의 금호석화 ‘승승장구’... 2Q 영업익 1500억원대 전망

반면, 박찬구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 금호석유화학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수 합병 실패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형 박삼구 회장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페놀체인과 특수고무 호조로 2분기 ‘깜짝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분기 165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올 2분기에도 약 1500억대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금호석유화학의 이같은 실적은 페놀유도체와 합성고무인 NB라텍스가 견인하고 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2분기는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달성이 예상된다”며 “전방 폴리카보네이트의 초강세 지속 및 증설에 따라 BPA마진 또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유

화학의 실적 호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고무부문에서 압도적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페놀유도체는 지난 4월 금호석화의 100% 자회사가 된 금호피엔비화학의 주력 제품이다. 페놀유도체 부문에 속하는 BPA는 폴리카보네이트의 핵심 원료로,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외관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인다.

페놀유도체 가격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PC 생산이 급확대되면서 수요 또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천연라텍스를 대체하며 매년 수요가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NB라텍스의 전망도 밝다.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울산 고무공장 NB라텍스 생산능력을 기존 연산 40만톤에서 55만톤으로 확대하는 증설에 돌입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는 애플 가법지만 쉽게 파손되지 않는 의료용 장갑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양성운·김유진 기자 ysw@metroseoul.co.kr

KT엠하우스 ‘기프트쇼’에 블록체인 적용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시스템 도입

KT 엠하우스가 8일 자사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기프트쇼에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프트쇼 포인트란 기프트쇼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포인트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미리 충전하거나 회원 등급에 따른 리워드 적립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등으로 제공된다.

이번에 적용된 KT 블록체인 기술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인 거래 급증에 따른 속도 저하를 개선했다. 거래량이 늘어나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분산 원장을 활용한 포인트 부여 내역의 위변조 방지와 PKI 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한 해킹 위험 차단 등 보안이 강화되었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 및 결제 데이터 검증과 대사 없이도 자동 정산이 가능하다. 포인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력과 인프라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KT 엠하우스는 자사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기프트쇼에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KT

도입으로 속도와 보안, 비용 세 가지 측면의 효과가 극대화됐다.

이번 상용화로 포인트 거래 규모와 범위의 확장과 동반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정산 프로세스 등의 운영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다. 이후 ▲회원 간 포인트 주고 받기 ▲외부 포인트와의 연동 ▲모바일 상품권의 포인트 환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직결제 ▲생체인증 및 보안 키보드 기반 안전결제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기대된다.

/안병도 기자

트윈워시 ‘3주년’... 신개념 세탁문화 확대

LG전자

여전히 높은 인기 지속... 저변 넓혀

LG전자는 3년 전에 출시한 트윈워시가 높은 인기를 이어가며 신개념 세탁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가 국내에 판매한 트윈워시는 매출 기준으로 LG 드럼세탁기의 절반에 육박한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세탁기인 미니워시를 결합한 트윈워시를 국내에 선보였다. 출시 3년 만에 트윈워시가 제시한 새로운 세탁문화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트윈워시의 인기는 LG 생활가전의 독보적인 모듈러 디자인에서 비롯된 탁월한 호환성 덕분이다. 트롬 세탁기와 건조기는 동일한 사이즈의 외관 모듈을 사용한다. 고객들은 미니워시만 구매하면 드럼세탁기나 건조기와 결합해 트윈워시로 사용할 수 있다. 트롬 건조기 하



단에 미니워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고객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다.

LG전자는 기존 2kg 및 3.5kg 용량에 더해 최근 4kg 용량의 미니워시까지 선보이며 트윈워시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LG전자는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트윈워시를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선보였으며 출시 국가는 80개국을 넘어섰다.

트윈워시는 세탁기 두 대를 하나로 만든 ‘원조’ 제품이다. 고객은 세탁기 두 대 가운데 하나만 사용하거나 동시에 두 대를 사용할 수 있어 분리·동시세탁을 통해 공간·시간절약 등이 가능하다.

트윈워시가 탑재한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 충격흡

수장치에서 착안한 진동저감기술이다. LG전자가 트윈워시를 선보인 지 3년이 지났지만 세탁기의 진동이 가장 커지는 탈수코스가 상·하단세탁기에서 동시에 가능한 제품은 트윈워시가 유일하다.

LG전자가 지난 20년 간 발전시킨 인버터 DD모터도 강점이다. LG전자는 유럽 최고의 규격인증기관인 독일전기기술자협회로부터 인버터 DD모터의 22년 수명을 인증받았다. 각국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인버터DD모터를 탑재한 LG 세탁기를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

LG전자는 트윈워시 출시 3주년을 맞아 6일부터 23일까지 LG 트롬 트윈워시 출시 3주년 기념 고객사랑 특별전을 진행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티웨이항공, 日 규슈 노선 5개 특가 이벤트

오늘 오전 10시부터 22일까지

티웨이항공은 일본 규슈 5개 노선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22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티웨이항공이 운영하는 5개 규슈(인천~후쿠오카, 대구~후쿠오카, 인천~구마모

토, 인천~사가, 인천~오이타) 노선이다.

국제선 편도 총액임금(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후쿠오카 4만 7000원부터 ▲사가 5만 5000원부터 ▲오이타 5만 9000원부터 ▲구마모토 6만 2000원부터다. 탑승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잠금화면 광고 보고 요금할인 받자!”



모델들이 LG플러스의 ‘U+잠금화면’ 앱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플러스

LG플러스 ‘U+잠금화면’ 앱 출시

LG플러스는 잠금화면 광고보기 적립금으로 통신요금 할인 또는 데이터 상품권 충전이 가능한 ‘U+잠금화면’ 앱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할인·결제·적립 통합 서비스 ‘U+멤버스’ 앱에서 잠금화면 기능을 분리해 선보이는 U+잠금화면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LG플러스 개인명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을 설치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고객은 휴대폰 잠금화면에 노출된 광고를 슬라이딩해 시청하면 1~2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U+멤버스 앱 내 ‘적립금 모으기’ 메뉴에서 광고 참여를 통해 포인트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다. 10포인트 이상 적립 시 매월 말 통신요금으로 자동 납부되고, 1000포인트 이상 적립된 포인트는 수시로 U+데이터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김민 기자 silkni@